한국원폭2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증언

▣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란

▣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왜 그곳에 있었는가
그리고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 원폭의 그날.

▣ 한국원폭피해자1세의 현실, 그리고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의 현실.

▣ 한국원폭피해자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인권회복(人權回復)'을 위해서.

＊ 때 : 2004년 10월 8일 (금) 오후 7시

＊ 곳 :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

＊ 한국원폭2세환우회 대표, 김형율

＊ 문의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02-3675-5810

안녕하세요.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천성면역글로블린결핍증**[immunoglobulin deficiency with increased lgM]'이라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20여차례이상 반복적인 폐렴재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폐기능이 80%이상 상실되어 있고 나머지 20%만 가지고 호흡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호흡기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 병은 문헌상 "X염색체 열성 유전에 의한 반성유전병
[X-linked Hyper-IgM immunodeficiency or Hyper-IgM syndrome]"**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란?

한국에는 저와 같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한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2,3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폭피해자 실태조사' 1991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는 원폭피해자1세대가 회원으로 2,2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폭피해자1세대의 자녀들인 원폭2세는 7천명에서 1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폭2세들 중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폭2세들이지만 건강한 원폭2세들은 정상인들처럼 평범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평생을 다양한 질환속에서 병마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에는 현재 2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분들은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혈성괴사증',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등 평생동안 병마에 의해 삶을 유린당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짊어지기에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라는 삶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을 낳아 기르신 어머니들의 눈물과 한(恨)이 서려있습니다.

누구나 결혼하여 건강한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작은 소망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부(天賦)의 권리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원폭피해자가 되어 건강하지 못한 자식을 두게 된 어머니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아닌 죄의식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를 둔 현실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는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혼자서 감내할 수 없는, 여성의 몸으로 원폭피해자라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를 둔 어머니로서 몇십년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지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은, 한 여성으로서 모성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 낮은 숨소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죄아닌 죄의식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국가와 사회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과 원폭피해자가족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는 작은 희망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과 원폭피해자가족들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범죄피해자이면서 핵피해자들인 원폭(原爆)2세환우(患友)와 원폭피해자가족들은 원폭피해자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도록 강요하여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거나 인간된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왜 그곳에 있었는가 그리고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되었으며 지금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식민지수탈정책과 침략전쟁으로 800만명의 한국인들은 강제연행, 납치되어 15시간이상의 강제노예노동과 일본군'위안부'등으로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해야 했었습니다. 그 많은 강제연행자들 중 합천에서도 보국대로, 식민지의 수탈적인 농업정책으로 삶의 근거를 빼앗긴 많은 합천농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로 도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6일 원자폭탄에 피폭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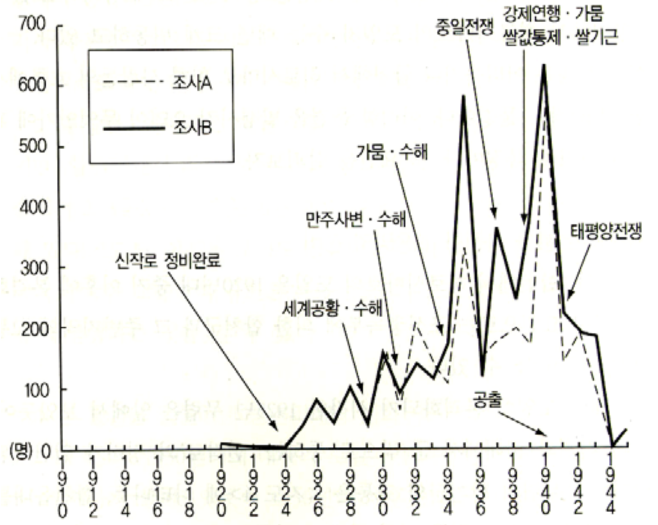
이와같이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삶을 규정하게 만든 일제강점기 36년 경남합천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고찰한 '한국의 히로시마'를 통해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해방전 합천에서 살고 계셨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수탈정책을 견더내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일본히로시마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必然)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동안의 경남 합천은 일제의 수탈적인 식민지농업정책으로 합천의 농업형태는 모든 분야에서 왜곡되고 피폐되어 갔습니다.
합천은 전체면적의 8할이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로 농가1호당 평균경작지면적이 2,670평으로 조선 전역의 평균인 4,410평보다 훨씬 좁은 경작지면적을 가졌으며 논이 많은 한반도 남부에서 합천은 특히 논도 적은 토지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농상의 악조건속에서 식민지지배 이전에는 그 영세성을 보충하기 위해 쌀,보리,콩,팥,잡곡,야채,특용작물 등 각종 작물을 골고루 재배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총독부가 밀어붙인 식민지정책인 일본인의 식량확보를 위한 쌀 증산정책 즉 조선의 농업전체를 미곡단작형 농업정책과 조선을 일본의 방적·제사자본의 안정된 원료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육지목화재배와 양장업의 강제보급정책을 실시하면서 합천농가의 농업경영상태와 농민들의 생활은 식민지지배가 가속화될수록 피폐되어 갔습니다.**

또한 합천농민들의 생활을 악화시킨 또다른 원인으로 매년 합천에 발생했던 자연재해와 식민지농업정책과의 관계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합천군 총면적의 약18%를 점하는 농경지는 초계분지 및 황강 유역이 평지부와 산간의 계곡부에 산재해 있고, 그 대부분은 천수답(관계설비가 없고, 오직 빗물에 의해 벼농사를 짓는 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강바닥이 얕은 황강유역의 전답은 장마나 태풍의 계절이 되면 홍수피해를 입기 쉽고 그 반대로 산간부에서는 가뭄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합천농민들은 예전부터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와같은 합천의 농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쌀증산정책인 쌀의 단작화를 강요하였으며 재해시 쌀이나 보리의 대용식으로 농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왔던 조나 메밀, 콩이 심어졌던 밭에 면화나 뽕나무를 심게 하였습니다.**
쌀이나 면화나 뽕나무만 심은 전답은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하며 약간의 홍수나 가뭄에도 합천농민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홍수나 가뭄이 휩쓸고 가게 되면 이농의 쓰라림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전답이나 도로나 가옥의 복구작업은 모두 농민들이 자력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의한 이농자가 늘어나면 복구작업은 진척되지 않아 농촌의 피폐는 더욱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향하는 합천농민이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합천군의 농촌피폐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많은 합천농민들이 이농의 괴로움을 겪었으며 당시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한 도항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도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합천농민들중에는 보릿고개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유리걸식하는 무리', '이촌재민'이 속출하여 전체 합천군 인구의 7할이상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되며 1930년, 1932년, 1935년, 1940년은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간 도일자 수가 급증한 해로서 합천에 큰 홍수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다음해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산천을 떠나 일본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합천군쪽에서 사람들을 히로시마로 '밀어내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합선에서 히로시마로의 연도별 이주자동향



참고 : 「재한피폭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등록표

그리고 히로시마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발발이후 일본의 참략전쟁 확대에 발맞추어 군사도시로서의 도시확장공사가 대대적으로 착수되어 군수공장이나 군사시설도 많이 만들어지고, 조선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1930년대에는 히로시마쪽에서도 합천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수탈정책과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은 많은 합천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도일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잔혹한 침략전쟁의 결과로 원자폭탄이라는 전대미문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70여만명의 인명이 살상되는 처참한 인명피해를 낳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항복과 함께 일제36년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 원폭의 그날.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사상 최초의 핵무기·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같은 해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원자폭탄에 의한 파괴는, 원자핵분열연쇄반응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강렬한 에너지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그것은 통상의 TNT화약폭탄의 2000만 배에 달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상공 약 600미터에서 폭발한 원자폭탄은, 온도 섭씨 수백만 도, 압력 수십만 기압의 불의 고리로 되어, 그 에너지의 50%가 폭풍으로, 35%가 열선으로, 15%가 방사선(그 중 5%가 순간방사선, 10%가 잔류방사선)으로 되어 지상을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① 강대한 폭풍에 의해, 건조물, 동식물, 인체가 파괴되고, ② 강력한 열선에 의해, 광범위한 곳에 걸쳐 화재가 일어나고, 건조물은 연소하고, 동식물・인체는 화상을 입고, ③ 순간방사선 혹은 잔류방사능에 의해, 인체를 비롯하여 모든 생물의 세포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열선과 폭풍에 의한 피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는, 작렬한 원자폭탄으로부터 방출된 열선에 의해, 폭심지(爆心地) 부근의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3000~4000도에나 달했습니다.
이 고온도의 열선과 강렬한 폭풍에 의해, 폭심지(爆心地)로부터 반경 1㎞ 이내의 구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열선으로 열소사(熱焼死)하거나, 폭풍으로 압사(圧死)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폭심지(爆心地)로부터 약 3.5㎞, 나가사키에서 4㎞ 이내에 있

었던 사람들은 노출부에 화상을 입고, 폭심지(爆心地)로부터 4㎞ 떨어진 지점에서도 폭풍으로 건조물이 반파하거나, 많은 사람이 폭풍에 날려 타박상을 당하거나, 비산물로 부상을 당하거나 했습니다. 또, 화재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열선과 화재에 의한 화상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죽은 자의 약 60%, 全사상자의 약 65%의 원인이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방사선에 의한 피해

방사선피해의 특징은 방사선이 체내에의 강한 침투성을 가지고 조직세포에까지 근원적 장해를 주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파괴가 진행되며, 건강장해로 평생을 투병생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해는 피폭방사선량이 증대할수록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방사선장해는 먼저 급성증상으로 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피폭 직후부터 약 4개월 사이에 이질,구토,식욕부진,두통,탈모,무기력,출혈,발열 등 일군의 증상으로서 나타납니다.

급성증상을 버티어내고 살아남은 피폭자도, 그 후 켈로이드(Keloid)(**피해자에게 특유의 열상반흔(熱傷瘢痕)인 켈로이드도 방사능의 영향이 고려되고 있다**), 백내장, 백혈병, 빈혈 등의 혈액질환・암・간(肝)장해 등의 장기질환, 정신신경장해, 노령가속현상, 무력증후군(소위「원폭어지럼병」) 등, 실로 다양한 만발성 장해가 일반인보다도 높은 확률로 발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폭탄의 투하에 의한 피해특징은,

첫째, **기습순간성(奇襲瞬間性)**－단 1발의 원자폭탄이 상공에서 폭발한 순간, 광범한 지역에 걸쳐 절대적인 파괴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무차별전면성(無差別全面性)**－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생물 및 환경의 전면파괴가 행해지고, 인간에 대해서는 비전투원, 전투원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셋째, **종합성(綜合性)**－피해자의 건강・생활・정신에 걸쳐 종합적 피해를 줍니다.

넷째, **지속성(持続性)**－「**방사능의 피해는 全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원자폭탄은 국제법에서 무차별 및 참학성(惨虐性) 탓에 그 사용이 금지된 독가스 이상으로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원폭피해자 10명중 1명은 한국인.

원폭투하시, 히로시마시에는 약 42만 명, 나가사키에는 약 27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피폭시의 외상이나 급성방사선장해로 즉사 혹은 1945년말까지 사망한 자, 소위「피폭사」한 사람은 히로시마시에서 약 16만명, 나가사키시에서 약 7만4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원폭희생자 중에는 많은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피폭자 수와 한국인의 피해상황]

피폭지	전체		한국인수				
	피폭자총수	피폭자수	피폭자수	폭사자수	생존자수	귀국자	일본체류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0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합 계	691,500	233,167	70,000	40,000	30,000	23,000	7,000

(참고 - 「핵방사선과 원폭증」, 1975년 : 한국피폭자의 현황, 1985년).

원폭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상황은 히로시마시에서 약 5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2만명, 피폭사한 자는 히로시마시에서 약 3만 명, 나가사키시에서 약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피폭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된 오늘날에도 일본정부,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모두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일본인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일본인원폭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의료적으로 꾸준한 정책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 한국원폭피해자1세의 현실, 그리고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의 현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미증유의 원폭후유증을 평생 앓고 있지만 **지난 59년동안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원호법"정책으로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 역시 자국민인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은체 방치하여 왔습니다.

일본정부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과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그리고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하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자국원폭피해자 35만여명에게 1957년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누계로 약 25조원(2조5,000억엔)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해 피폭자 예산만 해도 약 2조억원(2,000억엔)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폭피해자(1세대)들에게는 1991년,1993년도에 각각 17억 엔과 23억엔등 모두 40억엔(당시 환율 286억원) 기금을 받았을뿐입니다.
이것은 원폭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평생을 원폭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의료원호(援護)도 생활원호(援護)도 될 수 없는 인도적 기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하였지만 59**년동안 일본정부로부터 "인권유린"에 가까운 차별정책**으로 인간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본원폭피해자(1세대)들은 '의료법'과 특별조치법' 그리고 '피폭자원호법'으로 의료원호(援護)와 생활원호(援護)를 받아 건강.치료.생활상태가 나아진 것에 비하여,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전국에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폭전문병원을 세우는 등 **'원폭치료전문시스템'**을 59년동안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일본내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원폭피해자나 도일할 수 있는 한국원폭피해자 포함)일본인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전국의 병원 어디에서나 고가의 검사장비인 MRI, CT, 초음파검사등을 통한 각종 검사와 암치료, 수술, 입원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원폭후유증에 의한 질병에 따른 각종 수당(매월33만원~150만원)을 수령받는 등 일본인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피폭자원호정책은 일본인원폭피해자 스스로 원폭후유증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삶과 가족을 유지해나갈수 있도록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적십자원폭병원 [http://www.hiroshima-med.jrc.or.jp/home/index.htm]

나가사키적십자원폭병원 [http://www.nagasaki-med.jrc.or.jp]
(두 병원은 일본내에서 대표적인 원폭전문치료 병원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원폭후유증이라는 미증유의 질병을 앓고 있지만 한국 어디에서도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원폭전문의료기관의 부재속에서 열악한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로막아 가족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지난 59년동안 일본정부의 차별적이고 인권유린에 가까운 "피폭자원호법"정책과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법적인 보호없이 방치되어 있는 한국인원폭피해자 현실속에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 한국원폭피해자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인권회복'을 위해서.

오랜 세월동안 한국사회에 원폭피해자 문제는 묻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경남 합천에는 평생을 원폭후유증으로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세많으신 원폭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시지만 국가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원폭후유증을 치료할 전문의료기관조차 없는 현실은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인식할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지난 군사정권인 박정희군사정권과 전두환군사정권등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억압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정책으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는 철저히 억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두발의 원자폭탄으로 세계2차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은 소련과 핵군사력확대경쟁을 일으키며 미소냉전체제로 세계질서를 재편시킵니다. 미국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예속관계에 놓여 있었던 한국의 군사독재정권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반핵·반미주장으로 인식하여 친북.반공이데올로기로 억압하여 왔습니다.
이와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선행되지 못했던 한국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침묵을 강요받으며 지난 59년동안 생존권과 생명권의 위협속에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외침들이 억압받고 있을때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는 일본원폭피해자들을 앞세워 '유일한 원폭피해국, 유일한 원폭피해자'이데올로기를 전세계에 확산시켜왔습니다. 동일한 시·공간에서 원폭에 피폭당한 한국인 7만여명은 전체 원폭피해자의 10%를 차지하지만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원호법정책으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와 일본사회가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식민지수탈정책과 침략전쟁과 같은 '가해의 역사'를 철저히 은폐하면서 '피해자 의식'만 강요하며 지난 59년동안 허구적인 일본의 평화주의를 확대재생산하면서 일본사회는 점차 보수우경화가 되어가고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고이즈미준이치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일본헌법이 금지한 일본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서서히 일본제국주의로의 회귀본능을 시도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일본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차별적인 피폭자원호법정책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전후보상과 같은 전쟁책임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도 피해자라는 왜곡된 역사적·사회적 인식에 놓여 있기때문이며 지금도 일본정부는 '피폭자원호법'을 사회보장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는 전후세대로서 그리고 미국의 핵헤게모니 정책에 의해서 하루하루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원폭과 유전’ 문제는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59년동안 인권이 유린된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방사능영향연구소(미국에너지부·일본후생노동성 정부공동관리)’라는 미·일정부기관에서 '피폭2세건강영향조사'라는 역학조사를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의 원폭피폭자대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폭2세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결과가 17년이후에 나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원폭2세,3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월11일 방송된 KBS 추적60분-'해방59년,끝나지 않은 식민지의 고통-원폭2세'에서)

원폭2세들은 내년이면 6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세대가 됩니다.
후생노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언급한 것처럼 원폭2세들에 대한 대책을 17년후에 세워진다면 원폭2세들은 8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됩니다. 이것은 원폭2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건강권과 생존권 그리고 생명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며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있는 원폭피해자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정부에 의해서 존재할수 밖에 없는 전쟁범죄피해자들입니다. 국가의 전쟁범죄에 의해서 평생을 병마의 고통속에 살고 있지만 지난 59년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일것입니다.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에서는 앞으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미국정부에게 **'선지원 후규명'**으로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원폭피해자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패권주의로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하였고 세계는 다시 ‘전쟁‘을 목격하며 전쟁으로 인해 무수히 희생되는 민간인과 어린 아이들 모습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성찰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Derek Hudson/LIFE

그리고 미국정부는 이라크 땅에 반인륜적인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이라는 방사능무기를 다시 사용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미 1991년 걸프전에서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걸프증후군(Gulf War Syndrome)으로 무고한 이라크민간인과 군인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으로 참전한 미군과 영군군등에서도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방사능오염으로 심각한 방사능후유증을 초래하였

습니다. 이와같이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열화우라늄탄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다시 사용한 것은 미국정부가 지난 59년동안 '원폭과 유전'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외면한체 철저히 은폐와 왜곡으로 핵헤게모니에 의한 핵개발 정책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 위에 저와 같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21세기는 '인권(人權)'의 시대여야 합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할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든, 경제개혁이든, 사회개혁이든 인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억압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사회속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1990년초 일본군'위안부'이신 故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해방이후 45년만에 '위안부'로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였습니다. 길고 긴 세월동안 오로지 고통의 삶을 안으로 삭이며 지내야 했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생각하면 같은 일제피해자로서 숙연해집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다수의 압력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었던 소수자들의 인권회복(人權回復) 운동은 그간 사회의 억압적 질서 속에 눌려지냈던 일제피해자들과 전쟁피해자 그리고 장애우들의 이동권 쟁취 투쟁등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다수자들의 전체화된 폭력과 억압 질서가 만연했던 한국사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인권회복(人權回復)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회인식 토대위에서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인권회복(人權回復) 운동이 놓여 있으며 핵무기 피해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핵피해자로서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미국의 핵 선제공격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위기 상황에 누구보다도 근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의해 무수한 사람들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현실을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구체적인 삶들을 담보해내는, 핵무기 피해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삶을 통해 무서운 핵무기의 실상을 한국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야 하고 널리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가 지향해야 하는 인간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인권을 중시하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을 통했어 전쟁의 기억들을 복원하고 체계화하여 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핵위협이 상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人權)에 의한 평화, 인권(人權)을 위한 평화가 한반도와 전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이제수 역, 2003, 『한국의 히로시마』역사비평사.

- 진주, 2004, 『원폭피해자 증언의 사회적 구성과 내용분석』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복, 1986년, 『핵의 아이들』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 박래군, 2003년 봄호,『오늘의 인권 현실과 과제』
계간지 기억과 전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